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강민경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바로셀로나 음악박물관 - 한국악기특별전 개최	96	
2		재즈에 빠진 마드리드, Jazz Madrid!	97	
3		<라 나비데냐> 행사 참관기	97	
4		세비야 무용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노조의 성명 “바닥과 냉방의 문제가 부상을 야기”	98	
5		교육문화체육부, 올해의 골드메달(La Medalla de Oro al Mérito en las Bellas Artes 2017) 수상자 24명 발표	99	
6		동방박사의 날(Día de los Reyes Magos)과 퍼레이드 (Cabalgata de Reyes Magos)	100	
7		ARCOmadrid 2018 - 예술 표현의 자유 논쟁	101	
8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 The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우리의 유산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where the past meets the future)	102	
9		스페인 왕립극장(Teatro Real), 사르수엘라 극장(Teatro Zarzuela) 흡수합병 논란	104	
10		스페인 예술계의 #MeToo	105	
11		마드리드 어린이 연극축제 TEATRALIA, 2편의 한국공연 소개	107	
12		한국현대공예디자인 전시회 <시간의 여행(Viage Del Tiempo)> 개최	108	
13		유럽 전역의 안방을 들썩이게 한 Eurovision Song Contest 2018	109	
14		발렌시아 음악연맹,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밴드 퍼레이드 등 10개의 기네스 기록 달성	110	
15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Fundación Bancaja / 방카하재단	112
16			Kamikaze Teatro / 카미카제 극단	112
17			Fundacion SCHERZO / 스케르소 재단	113
18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INAEM) / The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114
19			ACCIÓN CULTURAL ESPAÑOLA(AC/E)	116
20			La Red Española de Teatros, Auditorios, Circuitos y Festivales de Titularidad Pública	117

21		CASA ASIA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류재단	118	
22		CENTRO BOTÍN / 보틴센터	119	
23		Fundación Bancaria Caixa d'Estalvis i Pensions de Barcelona, "la Caixa" / 카이샤 은행 재단	121	
24	공간	Matadero Madrid / 마타데로 마드리드	123	
25		Teatros del Canal / 카날극장	123	
26		El Círculo de Bellas Artes de Madrid (CBA)	124	
27		Palacio de Congresos Granada / 그라나다컨퍼런스센터	126	
28		Teatro Cervantes de Málaga / 말라가 세르반테스 공연장	127	
29		Corral de Comedias / 코랄 데 코미디아스	128	
30		La Tabacalera / 타바카레라	129	
31		La Casa Encendida / 카사 엔센디다	130	
32		축제 및 행사	Festival Internacional Madrid en Danza / 마드리드 댄스페스티벌	131
33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 / 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	131
34	Temporada Alta / 템포라다 알타 축제		132	
35	Madferia		133	
36	Flamenco de jerez / Jerez Flamenco Festival / 헤레스 플라멩코 축제		134	
37	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 유럽 아동극축제 FETEN		135	
38	Valladol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mana Internacional de Cine de Valladolid(스페인어) / 바야돌리드 국제 영화제		136	
39	dFERIA / 디페리아		137	
40	Feria de Sevilla(April Fair) /세비야 봄 축제		139	
41	La noche de los Teatros / 연극의 밤		140	
42	La Mostra d'Igualada / 어린이 청소년 공연축제		141	
43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Mérida / 메리다 국제고전연극제		142	

□ 현지동향

I. 현지 동향			
유형	전시	장르	전통
관련링크	http://ajuntament.barcelona.cat/museumusica/ca/exposicions/eolssigu-els-sons-de-corea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 - 한국악기특별전 개최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Museu de la Música de Barcelona)에서 10월 31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국악기특별전 “얼씨구! 한국의 소리(Eolssigu! The sounds of Korea)”가 개최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 전시회를 위하여 산조가야금, 산조아쟁, 해금, 소리북, 양금 등 총 22점을 기증하고 궁중악기와 소품 60점을 대여하는 등 82점의 국악 유물을 제공하였으며 특별전시가 끝난 후에도 기증악기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라우디토리 드 바르셀로나(L’Auditori de Barcelona)에서 31일 열린 전시 개막행사에는 국립국악원 연주단과 스페인 전통연주단이 함께 하며 5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시기간동안 장구체험을 비롯한 한국 악기를 활용한 다양한 워크샵 및 한국음악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박물관이 위치한 라우디토리 데 바르셀로나(L’Auditori de Barcelona)는 1999년 개관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음악전문 복합공연단지로 현 예술감독은 Joaquim Garrigosa Massana이다. 현대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 Rafael Moneo가 설계한 이 공간에는 2,200석, 600석, 400석, 152석의 4개 음악 공연장을 비롯하여 카탈루니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르셀로나시립밴드, 카탈루니아 고등음악원 및 음악박물관 등이 소속되어 있다.

(사진 1, 2 :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 한국악기특별전시회 모습)



유형	공연	장르	음악
관련링크	http://www.festivaldejazzmadri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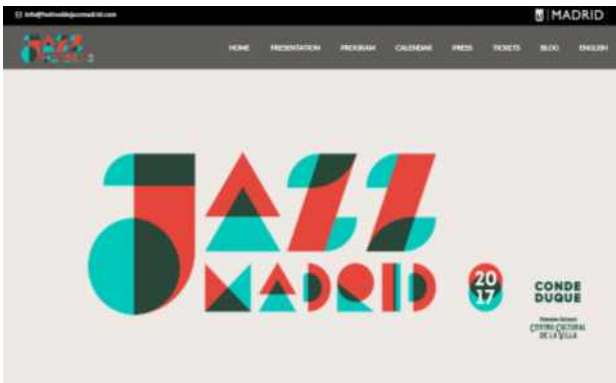
재즈에 빠진 마드리드, Jazz Madrid!

처음 온 마드리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온통 “재즈 마드리드” 현수막으로 가득 찬 거리였다. 재즈마드리드 페스티벌은 마드리드시가 운영하는 콘데두케 문화원(CONDE DUQUE)과 페르난고메스 문화센터(Fernán Gómez Centro Cultural de la Villa)가 주최하여 매해 11월 마드리드 전역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국제 축제로 올해는 프랑스문화원, 폴란드문화원 등이 협력하여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고전부터 현대, 아방가르드 재즈와 스윙, 비밥, 즉흥연주까지 모든 재즈를 접할 수 있는 이 축제는, 29일간 매일 6시간 이상씩 재즈 공연이 계속되며 마드리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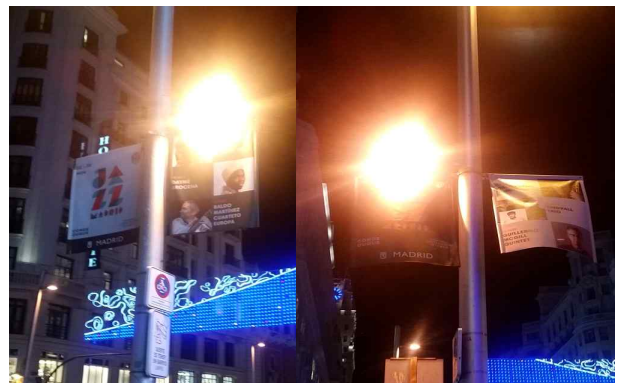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재즈마드리드 페스티벌은 재즈 뿐 아니라 스윙, 블루스를 비롯한 여러 대중음악으로 지형의 확장을 꾀하며, 튀니지의 류트연주자인 Anouar Brahem, 그리스 피아니스트 Tania Giannouli, 에티오피아 비브라폰연주자 Mulatu Astatke, 폴란드의 색소폰리스트 Maciej Obara를 비롯하여 말리, 과달루페섬(Guadalupe Island) 등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소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하여 여성 재즈 아티스트의 참여비율(25%)이 높았고, 지역 아티스트의 비중 역시 25%였다고 한다.

또한 음악 공연 뿐 아니라 Juan Carlos Corazza가 연출하고 Pepe Rivero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는 문학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는 낭독공연과 Moisés P. Sánchez의 마스터 클래스, 영화상영 및 사진전시,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같은 기간 독일 한국문화원을 비롯하여 유럽 내 5개 문화원이 함께 진행하는 재즈코리아 행사가 마드리드 스페인한국문화원에서 열려 한국 재즈음악을 스페인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기회를 함께 가졌다.



(사진1 : 재즈마드리드 홈페이지)



(사진2 : 거리 곳곳의 재즈마드리드 배너)

유형	축제/행사	장르	전체
관련링크	http://www.mataderomadrid.org/ficha/6026/la-navidena.-feria-internacional-de-las-culturas.html		

<라 나비데냐> 행사 참관기

마드리드에서 주최하는 2017년 크리스마스 인터내셔널 마켓인 라 나비데냐(La Navideña)가 복합문화공간인 마타데로(Matadero)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스페인 최대의 성탄절 행사 중 하나인 라 나비데냐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3회를 맞이하여 스페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각 국의 전통공연, 음악, 영화, 음식 등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하는 300여개의 문화행사가 진행되었고, 각 행사에 방문한 관객은 총 7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각 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홍보 활동을 펼치는 행사이다 보니,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부스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12월 17일 오후에는 이스라엘 부스 앞에서 최근 예루살렘 문제와 관련한 현지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흥미로웠는데, 나라별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통음식과 의상, 소품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역시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다가오는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이 곳 스페인에서도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화원에서 주최한 <쇼케이스 K-pop> 행사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행사는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스페인 예선전'에서 수상한 4개 댄스 팀의 합동 공연이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고,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에서도 추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행사 종료까지 이어졌다. 12개 곡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함께 춤을 추거나 응원 플래카드를 준비해오는 등 열띤 호응이 계속되었다.



(사진3 : 이스라엘 홍보 부스 앞 시위대 모습)



(사진4 : 라나비데냐 행사를 즐기는 마드리드 시민들)



(사진5 : Showcase K-pop 공연 장면)



(사진6 : Showcase K-pop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유형	예술인복지	장르	댄스
관련링크	http://www.elmundo.es/andalucia/2017/12/12/5a2fbdabe5fdea5c2a8b4574.html http://www.conservatoriodanzasevilla.com/		

세비야 무용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노조의 성명
“바닥과 냉방의 문제가 부상을 야기”

지난 12월 12일 노동조합 CGT는 국가가 세비야 무용교육원(Conservatorio de Danza de Sevilla)에 대해 ‘운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법 규정에 따라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CGT에 따르면, 세비야무용원의 고르지 않고 틈이 생긴 바닥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교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옆 교실의 음악소리가 겹쳐지며 청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시설과 높은 천장으로 인해 교실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부족으로 난방기를 제대로 켜지 못해 코트를 입고 수업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며, 수업 후에도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들 연구 공간을 비롯하여 경사로나 승강기, 화장실 역시

부족하며, 베틀이나 쥐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세비아 무용교육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공립 무용전문학교로 1984년 세워졌고, 세비아 주와 후엘바 주의 8살부터 25살의 학생, 총 760명을 대상으로 클래식, 현대, 스페인, 플라멩코의 4가지 무용 교육을 하고 있다.

무용원은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에서 아르헨티나관과 과테말라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에 위치해 있다가 학생 수 증가로 피노 몬타노(Pino Montano)의 CEIP Hermanos Machado 건물의 공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교육부는 네르비온(Nervión) 지역 4,000m²의 부지를 세비아 시에서 75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4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새로운 무용원을 짓는데 국회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 수 증가에도 운영비가 거의 늘지 않아, 노트북과 악기, 피아노 의자, 바, 바닥재 등 무용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CGT는 극장이 교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대기 공간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규에 따른 적절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CGT(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는 약 200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스페인의 노동총연맹으로, 직업 뿐 아니라 성별, 신앙, 인종, 국적, 언어, 정치적 사상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근로자들 간의 상호 지원과 연대, 사회적, 경제적 이해의 방어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사진1 : 세비아 무용교육원 홈페이지)

유형	예술일반	장르	복합(전체)
관련링크	https://www.mecd.gob.es/prensa-mecd/en/actualidad/2017/12/20171222-medallas.html		

교육문화체육부, 올해의 골드메달(La Medalla de Oro al Mérito en las Bellas Artes 2017) 수상자 24명 발표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는 2017년 문화부문 골드메달 수상자 24명을 발표하였다.

스페인의 문화부문 골드메달은 해마다 교육문화체육부가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연기 등 각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예술의 진흥과 보급, 보존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예술가(혹은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원래는 골드메달과 실버메달로 나누어 시상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골드메달만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3천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였고, 100개 이상의 골드, 플래티넘 앨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곡가 José Luis Perales, 음악 뿐 아니라 영화 감독, 배우, 조각가, 작가, 시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Luis Eduardo Aute와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 Juan Echanove, 사 진 작가 José Luis Alcaine, 영화음악 작곡가 Alberto Iglesias, 풍자만화가이자 무대미술가 겸 화가인 Andrés Rábago, 가수 겸 배우 María Dolores González Flores(Lolita), 배우 María Luisa Merlo, 플라멩코 안무가 겸 무용수 Eva Yerbabuena,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중인 요리사 José Andrés, 문학 번역가 Miguel Sáenz Sagasetta of Ilúrdoz,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Jordi Sierra i Fabra, 인테리어 디 자이너 José María Ortega (Easter Ortega), 파리의 Thessa Herold 갤러리를 운영중인 Thessa Herold, 조경사 Consuelo Martínez-Correcher, 예술품과 및 고고학 유적의 보존과 복구를 해 온 María Paz Navarro, 카탈루냐 지역의 기획자 María del Carmen Mateu,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품을 기 부한 María Isabel Ruiz와 Óscar Alzag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쿠바출신의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Andy García의 경우 여러 자선 활동과 스페인과의 관계, 할리우드에서 히스패닉계 배우로 성공한 점들을 이유로 올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룹이나 기관으로는 스페인의 락밴드 Hombres G와 전 세계적으로 4천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멕 시코 락밴드 Manna, 건축사무소 Nieto Sobejano Arquitectos의 Fuensanta Nieto와 Enrique Sobejano 등이 선정되었다. 사후 수상자는 플라멩코 가수이자 코미디 배우인 Chiquito de la Calzada, 투우사 Dámaso González Carrasco가 있다.

유형	시민축제	장르	복합
관련링크	https://www.thelocal.es/20160104/three-kings-wise-men-magi-santa-spain https://www.elconfidencial.com/espana/madrid/2018-01-03/cabalgata-reyes-2018-madrid-carmena-carrozas_1500682/		

동방박사의 날(Día de los Reyes Magos)과 퍼레이드(Cabalgata de Reyes Magos)

스페인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큼, 아니 어쩌면 더 기다리는 날이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다. 성경 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 날인 이 날은 스페인의 어린이 날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동방박사와 그들이 타고 올 낙타를 위해 음식 과 마실 것들을 신발과 함께 트리 아래나 문 밖에 놓아두고 잔다.

동방박사의 날을 기념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각 지역에서는 1월 5일 저녁 “동방박사 퍼레이드 (Cabalgata de Reyes Magos)”가 개최된다.

발렌시아 지역 알리칸테의 퍼레이드는 1866년 처음 시작되었고, 188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스페인에서(알리칸테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퍼레이드이다. 마드리드에서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거리로 모이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배를 타고 항구로 도착하며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퍼레이드에 등장한 동방박사들은 관객들을 향해 사탕을 던지고 아이들은 그 사탕을 받기 위해 가방을 준비하거나, 우산을 거꾸로 드는 등 기발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퍼레이드에서 동방박사의 역할은 시의원이 맡았는데, 대부분의 시의원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이슈가 있었다. 마드리드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후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흑인이 나 여왕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올해 퍼레이드에 드래그퀸(여장남자)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통’ 대 ‘평등’, ‘문화다양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8월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 한 여러 조치(밴과 트럭 출입 제한, 동방박사들의 경비 강화 등)가 취해졌다.

필자가 참관한 올해 마드리드의 퍼레이드에는 기마병과 기사들, 요정 등 고전 캐릭터들과 거대인형들, 소방관, 경찰, 병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함께 하였다. 200주년을 맞이한 스페인 국립극 장(Teatro Real)은 모차르트 머리모양과 오페라 소품, 조명으로 장식한 퍼레이드카로 시선을 끌었다. 위

대한 발명가와 과학자들을 기리기 위해, 아인슈타인과 레오다르도 다빈치, 퀴리 부인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동방박사들의 등장이었다, 미리 피라미드 형태의 퍼레이드카를 탄 3명의 동방박사와 어린이들이 지나가며 2시간 여의 퍼레이드가 마무리되었다. 비가 오는 중에도 꾸준히 시민들이 찾았으며, 그 중에는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사다리를 가지고 온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다.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 뒷줄에는 사다리에 올라가 관람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음악과 함께 등장한 Teatro Real의 퍼레이드 카

동방박사의 날인 1월 6일에는 링모양의 "로스콘(Roscón)"이라는 빵을 나누어 먹는데, 빵에는 말린 과일과 크림, 작은 인형과 콩이 들어있다. 인형이 든 조각을 먹으면 그 날의 왕이 되고, 콩이 있는 조각이 당첨되면 다음 해의 로스콘을 사야하는 전통이 있다. 일부 빵집은 로스콘 안에 다이아몬드, 금 등의 보석이나 수표 등을 넣어 고객들에게 행운의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동방박사를 태운 퍼레이드카



"동방박사의 날"에 먹는 로스콘 빵

유형	전시	장르	전통
관련링크	https://www.mecd.gob.es/prensa-mecd/en/actualidad/2017/12/20171222-medallas.html		

ARCOmadrid 2018 - 예술 표현의 자유 논쟁

스페인 국제현대아트페어(FERI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ARCO) 37회 행사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IFEMA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아르코(ARCO)는 스페인어 'Arte Contemporaneo'의 약칭으로, 스페인 미술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1982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2월에 개최되고 있다. 현재는 매해 250여 개 화랑이 참가하고 150,000명이 관람하는, 스위스 바젤, 독일 쾰른, 미국 시카고, 프랑스 파리 아트페어와 함께 세계 5대 국제아트페어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성장하였다. 회화, 조각 등 전통 미술 장르를 비롯하여 사진,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뉴미디어, 판화 등 현대 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회로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제건본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이 ARCO의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Corea Ahora(지금 한국)"라는 주제로 14개 한국 화

량이 38명의 작가들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주변 전시장과 영화관, 콘서트 등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37회를 맞이한 ARCOmadrid 2018은 29개국 208개의 갤러리가 참여하였고, 아방가르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비디오, 뉴미디어,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사진1 ARCOmadrid 2018을 관람하는 전문가들)

(사진2 ARCOmadrid 2018 행사장 입구)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과 달리 주빈국을 두지 않고, 유명 큐레이터들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꾸린 점이다. 추스 마르티네스(Chus Martínez), 엘리세 라머(Elise Lammer)와 로사 예오(Rosa Lleó)는 “미래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El futuro no es lo que va a pasar, sino lo que vamos a hacer)”을 주제로 19개 갤러리와 19명의 예술가를 선정하여 특별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María de Corral, Lorena Martínez de Corral, Catalina Lozano Marri 등 큐레이터들이 선정한 갤러리, 예술가들과의 대화 섹션, 젊은 큐레이터들의 특별전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ARCOmadrid에서는 Santiago Sierra의 <현대 스페인의 정치범들(Presos políticos en la España contemporánea)>이라는 작품과 관련하여 예술의 “표현의 자유” 이슈가 있었다. 이 작품은 모자이크 처리된 흑백 인물 사진 24점과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지난 해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 체포되어 투옥된 Oriol Junqueras와 Jordi Sànchez, Jordi Cuixart가 포함되어 있었다. 왕과 왕비가 참석하는 개막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인 IFEMA는 이 작품을 철거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창작물에 대한 검열은 아니다”고 발표한 후 다시 작품을 설치하였다.

유형	기념행사	장르	문화유산
관련링크	https://europa.eu/cultural-heritage/european-year-cultural-heritage_en http://mezd.gob.es/prensa-mezd/actualidad/2018/02/20180213-patri.html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 The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우리의 유산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Where the past meets the future)

유럽의회는 2018년을 유럽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유럽 각국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한다.

유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제기된 ‘유럽문화의 해’ 아이디어는 유럽의회가 2016년 8월 유럽문화의 해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며 구체화 되었다.

유럽문화유산의 해 원년인 2018년에는 유럽의 각국과 지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념하며, 더 많



2018 유럽문화유산의해 로고
(출처 : 유럽문화유산의해 홈페이지)

은 사람들이 유럽의 문화 유적과 만나도록 하고, 유럽의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이 유럽 전역에서 개최된다. 2018 문화유산의 해를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위원회를 비롯한 EU의 모든 기관들이 나서며, UNESCO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교육 활동, 문화 유산의 재활용을 위한 연구, 문화재 불법거래와의 전쟁 등의 장기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유산은 건축물과 기념물, 공예품, 의복, 미술과 책, 기계, 역사적인 마을과 유적지와 같은 유형의 유산과 관습, 표현, 지식, 도구와 관련된 기술, 시민의식, 언어, 구전되는 전통과 공연예술, 사회적 운동과 전통 공예와 같은 무형유산 뿐 아니라 자연경관, 동식물과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었거나 보존할 수 있는 리소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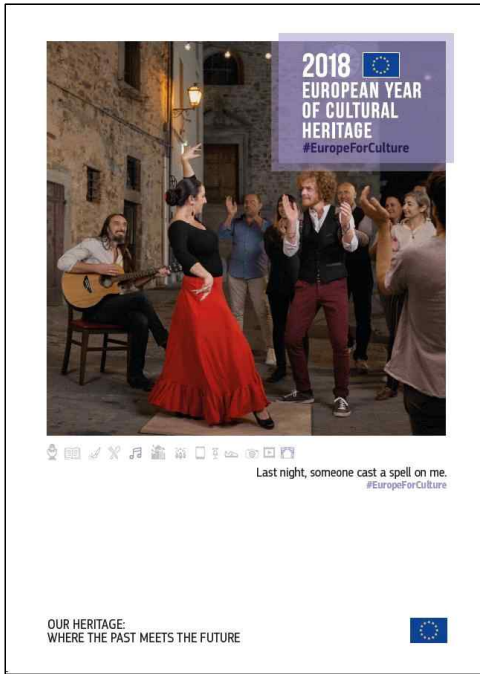
문화유산은 개인, 공동체, 사회로서 우리에게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에서 온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고 진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이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문화 간 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미래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유럽 문화 유산의 해(2018)를 위한 예산은 약 8백만 유로로, 이 중 3백만 유로는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충당된다. 2018년 유럽문화의 해 동안 28개 나라에서 7840개의 행사가 진행되며 1,120,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인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46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무형유산까지 더하면 총 62개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 정부는 2018년 유럽문화유산의해와 관련된 컨퍼런스, 전시회, 총회,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문화부와 자치주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 문화유산들을 경험하고 역사와 공통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유럽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에서 예정되어 있는 주요 행사로는 유럽문화수도 살라망카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쿠엥카 등에서의 회의, 시망카의 왕실문서기록보관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 “스페인, 렌즈 아래 : Juan Laurent와 문화유산사진” 순회 전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순례자의길(Camino de Santiago)과 관련된 사진전 및 문화유적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방지 협약을 회의 등이 있다.



2018 유럽문화유산의해 포스터
(출처 : 유럽문화유산의해 홈페이지)



스페인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중 쿠엥카 성곽도시

유형	축제	장르	복합
관련링크	http://www.teatro-real.com http://teatrodelazarzuela.mcu.es/en/ http://www.elmundo.es/cultura/musica/2018/03/10/5aa40d55e2704e70488b4611.html http://www.elmundo.es/cultura/teatro/2018/03/20/5ab15eb9e5fdeaef048b46ae.html		

스페인 왕립극장(Teatro Real), 사르수엘라 극장(Teatro Zarzuela) 흡수합병 논란

스페인 교육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3월 10일 왕실법령에 따라 스페인 왕립극장과 사르수엘라 극장을 병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왕립극장후원회와 사르수엘라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INAEM은 사르수엘라 극장이 제2의 왕립극장이 되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파리오페라극장(Paris Opera)과 바스티유극장(Bastille Theater)의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왕립극장 외관



사르수엘라극장 외관(출처 : zarzuela 극장 홈페이지)

프라도미술관, 레이나소피아미술관과 함께 제3대 스페인 문화 예술 기관으로 꼽히는 스페인 왕립극장(Teatro Real)은 1818년 창립되어 올해 200년을 맞았으며, 연간 예산은 5500만유로이다. 왕립극장 건물은 1850년 개관하였고, 1990년대 리모델링 후 재오픈하였다.

스페인 무형유산의 하나인 사르수엘라(Zarzuela)는 사설·노래·합창·춤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악극 장르로,

서정시를 기반으로 한 스페인식 뮤지컬코미디 공연이다. 사르수엘라 극장(Teatro de La Zarzuela)은 1856년 개관 이래 사르수엘라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해 왔다. 원래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1984년부터 스페인 정부가 소유하여 현재는 INAEM(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국립공연예술음악협회)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예산은 3500만 유로였다.

교육문화체육부는 연간 1억 유로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스페인 내 최대 규모의 예술 극장이 탄생하게 되는 이번 병합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스페인 문화예술계가 활성화 되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장으로서의 상징성을 비롯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스페인 예술의 영향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사르수엘라 장르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병합에 대해 스페인의 예술가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 공연예술 및 음악협회(INAEM)소속 국립기관으로 운영되던 사르수엘라 극장이 왕립극장으로 흡수되며 사르수엘라 장르 보존 및 소속 예술가와 노동자들의 복지, 사르수엘라 공연 가격정책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르수엘라 노동조합은 이번 합병은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4월 5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이들은 제작, 전시, 예술 교육의 직접 운영권 소실에 대한 INAEM 점진적 해체와 사르수엘라극장 운영에 대한 교육문화체육부의 정책 철회, 공공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보호의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형	사회운동	장르	예술, 여성
관련링크	https://elpais.com/elpais/2018/01/25/inenglish/1516873472_512637.html https://elpais.com/elpais/2018/01/30/inenglish/1517315992_964577.html https://elpais.com/elpais/2018/03/06/inenglish/1520325751_504683.html https://www.larazon.es/toros/alicia-costa-me-siento-mas-atacada-por-querer-ser-torero-que-por-ser-mujer-FL17854010 http://www.elmundo.es/comunidad-valenciana/alicante/2017/07/27/5979cb7d268e3e0c758b4602.html		

스페인 예술계의 #MeToo

국내 예술계의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역시 한국만큼 대대적이지 않지만 여성예술인 단체인 “판도라의 상자(La caja de Pandora)”를 중심으로 예술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여성 3명 중 1명(32%)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적괴롭힘(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한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 중 47%가 대학시절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내에 성희롱에 대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고 최근까지 계속된 경제난에 직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관련 문제 역시 과소보고 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에서 여성의날 행진 및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스페인 전역의 여성들이 여성의 날에 2시간 동안 일을 멈추는 파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진행되었고,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 50만명이 참가하였다.



마드리드 여성의날 시위 모습 (출처 : LA Nacion 기사)



마드리드 여성의날 시위 모습 (출처 : El mundo 기사)

스페인 예술계의 MeToo 운동은 무용수인 Carmen Tomé가 지난해 “알리칸테(Alicante)의 문화센터 라스 시가레라스(Las Cigarreras)에서 진행된 예술워크숍에서 큐레이터 Javier Duero에게 욕실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3,00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판도라의 상자는 예술계 성희롱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로 레이나 소피아 박물관(Reina Sofía Museum) 앞에서의 시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술계 성폭력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언론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는 학대, 협박 및 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교육 및 관련 법안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레이나소피아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판도라의 상자' 시위 모습(출처 : El pais 기사/ÁLVARO GARCÍA)

그러나 아직 스페인 #MeToo의 피해 사례들은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측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직장이나 조직에는 여전히 가해자가 권력자로 존재하고, 결국 피해자가 떠나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술계에서 여성의 지위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배우이자 영화감독이며 최근 “Morder la manzana(사과를 물다)”를 펴낸 Leticia Dolera는 스페인 영화계 역시 가부장적이며 같은 감독이라도 여성이기에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Javier Bardem과 Antonio Banderas 등 스페인의 유명배우들도 #MeToo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유형	축제	장르	복합
관련링크	http://www.teatro-real.com http://teatrodelazarzuela.mcu.es/en/ http://www.elmundo.es/cultura/musica/2018/03/10/5aa40d55e2704e70488b4611.html http://www.elmundo.es/cultura/teatro/2018/03/20/5ab15eb9e5fdeaeef048b46ae.html		

마드리드 어린이 연극축제 TEATRALIA, 2편의 한국공연 소개

스페인 교육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3월 10일 왕실법령에 따라 스페인 왕립극장과 사르수엘라 극장을 병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왕립극장후원회와 사르수엘라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INAEM은 사르수엘라 극장이 제2의 왕립극장이 되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파리오페라극장(Paris Opera)과 바스티유극장(Bastille Theater)의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18 TEATRALIA 이미지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마드리드주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연극축제 <TEATRALIA(어린이청소년국제공연예술제)>가 개최되었다.

1997년 시작되어 올해 22회를 맞은 TEATRALIA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공연들을 소개하는 연극축제로, 모든 공연 예술(무용, 음악, 연극, 인형극, 서커스)을 만날 수 있고, 연령별로 추천 공연을 제안한다.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올해 축제에는 총 25편의 공연을 마드리드 주의 27개 지역에서 127회 상연하였다. 해외 작품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공연이 소개되었고, 연극과 설치, 인형극, 워크숍, 무용, 서커스, 음악 등 모든 연령의 관객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축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 브러쉬씨어터의 <Brush>는 마드리드를 비롯하여 4개 도시에서 총 8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함께 초청된 또 다른 한국 공연팀인 The Befu의 <나무와 아이>역시 2개 도시에서 총 6회 공연을 통해 스페인 관객들과 만났다.

Teatralia는 어린이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전 세계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축제로, 어린 관객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예술을 통해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Teatralia는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통합 축제이기도 하다. 일부 공연에 수화 통역을 제공하고, 음성 코딩 시스템 및 통신 코드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들의 관람과 이해를 돕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시작 장애인들 대상의 연극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보호자들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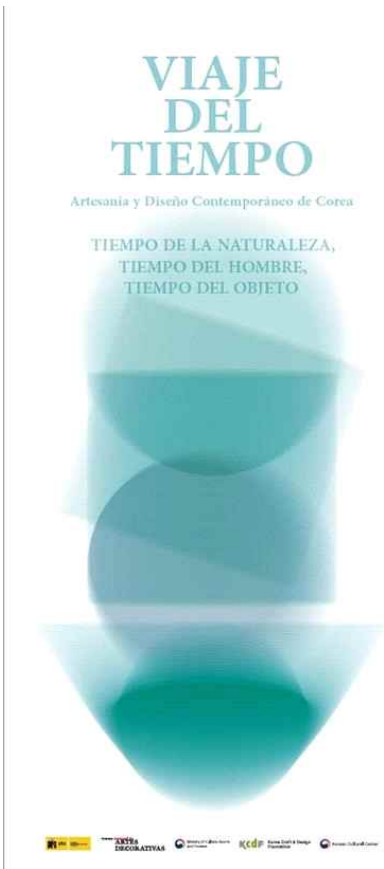
브러쉬씨어터 <The Brush> 공연 모습



The Befu <나무와 아이> 공연 모습

유형	전시	장르	공예
관련링크	www.viajedeltiempo.com		

한국현대공예디자인 전시회 <시간의 여행(Viage Del Tiempo)> 개최



<Viaje del Tiempo> 포스터

한국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한국현대공예 전 <시간의 여행(Viage Del Tiempo)>이 스페인 국립 장식미술관에서 6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스페인 국립장식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장식미술관 2층 전층을 활용하여 장연순 작가의 <늘어난 시간>, 황삼용 작가의 <장> <조약돌>, 배세진 작가의 <고도를 기다리며>, 노일훈 작가의 <라미 벤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 작가 27인의 97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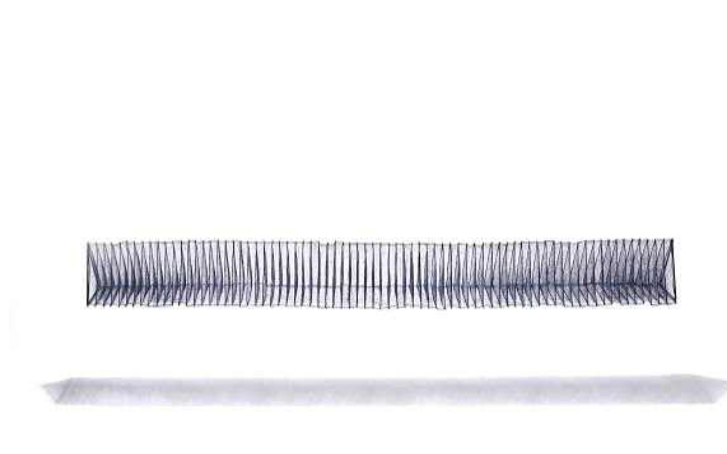
<시간의 여행(Viage Del Tiempo)>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예 디자인 작품을 <자연의 시간(Tiempo de la Naturaleza)>, <사람의 시간(Tiempo del Hombre)>, <사물의 시간(Tiempo del Objeto)>으로 나누어 자연에서 오랜 시간 숙성한 다양한 소재가 사람의 손을 거쳐, 공예 작품으로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각 작품에 깃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구성되었다.

<자연의 시간>에서는 자연 그 자체의 존재를 탐구하고 자연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작품이, <사람의 시간>에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 기술이 전수되어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들이, <사물의 시간>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기술적으로 재현해 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4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소피아 로드리게스 국립장식미술관장, 루이스 라푸엔테 스페인교육문화체육부 문화유산예술실장 등 스페인 문화계의 주요 인사와 전홍조 주스페인한국대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UNESCO에 등재된 양국의 음악인 '가곡'과 '플라멩코' 협연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 공예를 통해 한국인들의 생활과 철학, 사교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은 모바일(www.viajedeltiempo.com)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장식박물관은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 소속의 기관으로 1912년에 설립되었고, 카펫과 자기, 유리, 가구, 식기, 보석, 금속류, 상아 장식, 그림, 조각 등 약 4만점이 전시되고 있다.



장연순 작가 <늘어난 시간>



황삼용 작가 <조약돌>

유형	콘테스트	장르	음악(대중음악)
관련링크	https://eurovision.tv/		

유럽 전역의 안방을 들썩이게 한 Eurovision Song Contest 2018



2018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로고
(출처 : 유로비전 홈페이지)

43개국이 참여한 63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결선무대가 5월 8일과 10일(준결승), 12일(결승) 포르투갈 리스본의 Altice Arena에서 진행되었다.

유럽방송협회(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가 개최하는 이 콘테스트는 1956년부터 시작된 유럽 최대, 최고(最古)의 음악 경연대회이다.

콘테스트의 우승국이 다음 해 콘테스트의 주최국이 되는 전통에 따라, 지난 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우승자(Salvador Sobral)를 배출한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대회를 유치하였고, 포르투갈 여러 도시들이 개최를 희망했지만 최종적으로 리스본이 선정되었다. (개최지는 1만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1500명의 기

자들을 위한 프레스 센터, 2000명이상이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격대의 호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콘테스트의 주제는 "All Aboard!"로 로고는 유럽 바닷길의 중심지였던 포르투갈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6개의 최종결선국가(포르투갈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37명의 준결승 진출자들은 콘테스트의 공식 파트너를 통해 투표한 결과를 토대로 6개 파트로 배정되어 준결승을 치른다.



2018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 Netta
(출처 : 유로비전 홈페이지, Photo : Andres Putting)



2018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모습
(출처 : 유로비전 홈페이지, Photo : Andres Putting)

5월 12일 진행된 결승에서 이스라엘 대표 네타 바르질라이(Netta Barzilai)가 '토이(Toy)'로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예루살렘에서의 개최 성사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유로비전라이브 이벤트로는 콘테스트를 비롯하여, 10~15세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11월에 개최되는 주니어 유로비전송콘테스트(Junior Eurovision Song Contest), 18세 이하 유럽의 클래식 연주자들과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로비전 젊은 음악가(Eurovision Young Musicians)와 유로비전 젊은 무용수(Eurovision Young Dancers), 유로비전올해의합창단(Eurovision Choir of the Year) 등이 있다.

유형	행사	장르	음악
관련링크	https://fsmcv.org/ https://elpais.com/ccaa/2018/05/26/valencia/1527353929_966642.html http://www.elmundo.es/comunidad-valenciana/2018/05/21/5b02a1d1e2704e2c098b45a4.html		

발렌시아 음악연맹,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밴드 퍼레이드 등 10개의 기네스 기록 달성

발렌시아의 음악연맹인 La Federación de Sociedades Musicales de la Comunidad Valenciana(이하 FSMCV)이 5월 26일 토요일 Mestalla 축구장에서 427개 단체, 23,000 여명의 음악가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공연을 통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였다.

이번 공연은 연맹 창단 5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로, 발렌시아 자치주의 음악 분야에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연맹은 밝혔다. 발렌시아 지역 음악가를 비롯하여 Sole Giménez와 그룹 Cashalada, Va de Bo, Xarxa 등도 참여하였다.

이번 기록을 위해 발렌시아 음악원의 학생들과 Saül Gómez, Andrés Valero-Castells과 같은 작곡가들이 바로크부터 현시대까지, 발렌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재정리하고 새로이 작곡과 편곡을 하였다.




행사 모습 (출처 : FSMCV 홈페이지)

행사는 277개 밴드, 10,000여명의 음악가들이 벌이는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저녁 9시부터는 Mestalla 축구장에서 발렌시아 그룹 Vadebò의 공연과 알리칸테, 카스테욘, 발렌시아 3개 시립밴드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연맹이 이번에 도전한 기네스 기록은 최대규모의 음악 밴드 퍼레이드, 최대 규모의 색소폰 앙상블, 최대 규모의 잉글리쉬호른 앙상블, 최대 규모의 오보에 앙상블, 최대 규모의 호른 앙상블, 최대 규모의 트럼펫 앙상블, 최대 규모의 트롬본 앙상블, 최대 규모의 유포니엄 앙상블, 최대 규모의 클라리넷 앙상블의 악기별 최대 규모의 앙상블 공연과 최대 규모의 바디 퍼커션 공연까지 총 10개이다.

FSMCV는 발렌시아 지역의 549개 음악 단체, 200,000여명의 회원, 4만명의 음악가, 4200여명의 교사와 600개의 교육기관, 6만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Fundación Bancaja / 방카하재단		
	유형	문화재단	장르	공연,복지
	운영주체	방카하재단		
	소재지	발렌시아	설립년도	2013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fundacionbancaja.es/		
	<p>방카하 재단(Fundación Bancaja)은 문화 및 복지 분야 지원을 위해 Bankia은행이 운영하는 민간재단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p> <p>방카하재단의 미션은 문화를 통해 발렌시아 지역과 시민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유무형 예술적 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여, 문화를 통한 발렌시아 사회의 통합 및 결속을 강화하고 개인 및 단체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p> <p>방카하 재단이 운영하는 방카하 문화센터(Bancaja Cultural Center)는 발렌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옛 Caja de Ahorros 본사 건물과 20세기 초 Monte de Piedad de Valencia 두 옛 건물을 합쳐 활용하고 있다. 344석 규모의 다목적홀은 공연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 컨퍼런스, 회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200명이 수용 가능한 돔(CUPOLA)는 리셉션, 프리젠테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p> <p>(사진1 : 방카하재단 외부)</p>  <p>* TIP : 방카하 재단의 Concerts to the Fundació는 다양한 음악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시즌프로그램 중 하나로 10월부터 5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진행됩니다.</p>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Kamikaze Teatro / 카미카제 극단		
	유형	극단, 극장	장르	연극
	운영주체	카미카제 극단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16
	홈페이지	http://teatrokamikaze.com/programa/avance-temporada-2017-18/ https://www.meecd.gob.es/prensa-meecd/actualidad/2017/09/20170927-pn-teatro.html		

카미카제극단은 교육문화체육부에서 매해 9월 그 해의 가장 우수한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국가예술상(Premio Nacional De Teatro 2017)의 2017년 연극분야를 수상하였다. 심사위원단은 그들의 선정이유를 “극작, 연출, 연기 및 제작 각 분야의 우수한 예술가들이 함께 완성한 집단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였다.

2016년 미구엘 델 아코(Miguel del Arco)와 이스라엘 엘레할데(Israel Elejalde), 아이토르 테하다(Aitor Tejada)의 ‘카미카제 프로덕션’과 와 조르디 북소(Jordi Buxó)가 이끌었던 ‘복스만 프로덕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카미카제 극단은, 고전부터 현대까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는 공연을 선보이며 1년 만에 스페인 최고의 극단으로 올라섰다.

현재 극단의 예술감독은 미구엘과 이스라엘이 맡고 있으며 시즌프로그램에는 창작 연극, 번역극 및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마요르광장 La Latina 역 근처에 위치한 파본극장(teatro pavon)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극장은 400석 및 80석 규모의 공연장 및 워크샵, 강의, 리허설, 독서, 프리젠테이션 등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1 : 카미카제 극장 외관)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Fundacion SCHERZO / 스케르소 재단		
유형	지원기관	장르	음악(클래식)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1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fundacionscherzo.es/index.html		

스케르소 재단(LA FUNDACIÓN SCHERZO)은 피아노를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중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예술적 통합과 음악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5년 잡지 SCHERZO를 창간하였고, 1996년 거장 연주자 시리즈를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재단은 2001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활동은 Ciclo Grandes Intérpretes(거장 연주자 시리즈)와 Ciclo Jóvenes Intérpretes(청년 연주자 시리즈)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Ciclo Grandes Intérpretes는 동시대 거장들을 초청하여 마드리스 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립콘서트홀(National Music Auditorium)에서 진행된다. 2002년 시작된 Ciclo Jóvenes Intérpretes는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데뷔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스페인 작곡가 작품의 초연무대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 연주자들의 공연은 카날극장에서 열린다.

2004년부터 재단이 발간하고 있는 “Musicalia”는 Josep Soler, Hans Werner Henze,

Alfred Brendel, Steven Isserlis 등 최고의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컬렉션으로 높은 지적 수준의 독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작곡가와 작가, 연주자, 연출가 등이 음악을 테마로 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스케르소 재단 거장 시리즈의 2017년 프로그램)



(스케르소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기관/단체명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INAEM) / The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유형	공공기관	장르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서커스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1985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mcu.es/gabineteprensa/mostrarDetalleGabinetePrensaAction.do?jsessionid=D170BDDCD0F7823C79FC5D1F6FA67478?prev_layout=notasINAEM&layout=notasINAEM&html=37212018nota.txt&language=es https://www.mecd.gob.es/cultura-mecd/areas-cultura/artesescenicas/informacion-general/lineas-de-actuacion.html		

기관 및 단체

국립공연예술음악협회(INAEM)는 연극, 무용, 문학, 음악, 서커스 공연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문화예술분야의 독립 국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1. 모든 형태의 공연들을 진흥, 보호, 보급하고, 2. 이러한 활동들을 외부에 투영하여 알리고 3.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자치주 사이의 문화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상, 보조금, 지원금의 수여를 통한 공연예술의 진흥과 보급 활동 2. 문화부나 INAEM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공과 민간의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창작 및 제작 센터의 프로그래밍과 관리 3. 음악과 무대 자산의 목록작성, 분류 및 보급 4. 기타 위탁업무 수행의 기능을 맡고 있다.

INAEM의 활동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NAEM이 직접 창작, 전시, 단독 혹은 공동 제작하는 직접 활동 영역이다. 공연제작, 전시, 다큐멘테이션 및 공연(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 등) 홍보, 보호, 배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하고 홍보한다. 특히 스페인 공연의 보호와 보존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록 센터와 국립연극박물관(알마그로 소재)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대기술센터를 통한 훈련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INAEM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기관은 국립드라마센터

(Centro Dramático Nacional), 국립고전극단(Compañía Nacional de Teatro Clásico), 사르솔레아 극장(Teatro de La Zarzuela), 국립무용단(Compañía Nacional de Danza), 국립발레단(Ballet Nacional de España), 국립음악당(Auditorio Nacional de Música), 국립오페라 및 합창단(Orquesta y Coro Nacionales de España), 국립청소년오케스트라(Joven Orquesta Nacional de España), 국립음악보급센터(Centro Nacional de Difusión Musical), 연극기록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Teatral), 음악무용기록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de Música y Danza), 댄스포털(Portal de la Danza), 무대기술센터(Centro de Tecnología del Espectáculo), 알마그로 연극 박물관(Museo del Teatro de Almagro), 마갈리아궁(Castillo-Palacio de Magalía)의 15개이다.

두 번째 활동영역은 공공이나 민간 단체의 지원부문이다. 매해 상금과 보조금, 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하여 예술가와 단체의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려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제작, 전시, 투어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활동 영역인 협력과 참여 영역은, 공공/민간 공연예술단체의 특정 프로젝트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협업하는 것이다. INAEM은 알마그로의 고전연극제(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와 메리다의 로마시대고전연극축제(Festival de Teatro Clásico en el Teatro Romano de Mérida.), 타레가의 피라타레가축제(Fira de Teatre al Carrer de Tàrrega), 카디스의 이베로아메리안연극제(Festival Iberoamericano de Teatro de Cádiz), 알리칸테 현대극작가축제(Muestra de Teatro de Autores Contemporáneos), 그라나다의 국제 음악무용축제(Festival Internacional de Música y Danz), 라스미나스 음악축제(Festival Cante de las Minas), 산탄데르 국제축제(Festival Internacional de Santander) 등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공연단체와 기관들을 관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단체로는 왕립극단재단(Fundación Teatro Real), Lliure 극장(Teatre Lliure-Teatre Public), Abadía 극단(Teatro de la Abadía), 리세우 극장(Gran Teatro del Liceo), 카탈라냐음악당(Fundación "Orfeó Catalá - Palau de la Música Catalana"), Complutense 음악과학연구소(Instituto Complutense de las Ciencias Musicales), 마뉴엘음악문서보존센터(Fundación Archivo Manuel de Fall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INAEM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민간극장 보존을 위한 컨소시엄 등 공연 기반 시설 복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주와 지역 단체들, AECID(스페인국제개발협력기구,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나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같은 문화부의 다른 기관들과 교류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의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르반테스원장을 역임한 Montserrat Iglesias Santos로, 2014년 임명되었다.



INAEM 로고



스페인문화부와 INAEM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기관/단체명	ACCIÓN CULTURAL ESPAÑOLA(AC/E)		
유형	공공기관	장르	국제교류 지원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10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accioncultural.es/ https://www.accioncultural.es/media/Default%20Files/activ/2017/ebook/MEMORIAACE_2016.pdf		

AC/E

Acción Cultural Española

AC/E 로고

AC/E(ACCIÓN CULTURAL ESPAÑOLA)는 전시, 컨퍼런스, 공연, 행사, 강연,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스페인의 이미지와 다양하고 역동적인 스페인의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소개, 홍보하고 유통하는 공공기관이다.

2010년 국내외에서 스페인 문화와 예술의 홍보를 하고 있던 3개의 공공기관[Sociedad Estatal de Conmemoraciones Culturales(SECC, 국가기념사업회), Sociedad Estatal para la Acción Cultural Exterior(Seacex, 해외문화원), Sociedad Estatal para Exposiciones Internacionales (SEEI, 국제전시협회))이 합병되며 설립되었다.

기관 및 단체

AC/E의 목표는 역사 유산부터 최신 창작품까지, 스페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적 유산을 홍보하고 현대 예술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과학, 역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및 시청각 예술과 문학, 음악, 건축 및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창작 분야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C/E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1. 주요 기념 이벤트 : 주요한 사건이나 인물, 예술-역사, 과학적 혹은 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를 재검토, 재해석하고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기념 이벤트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과 스페인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 국제 박람회 :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가 주관하는 EXPO에 참여하여 스페인의 이미지와 다양성을 해외에 알리는 통로로 삼고 있다.
3. 중요 문화 행사 : 비엔날레, 박람회, 축제와 같은 현대 문화예술 분야에 권위있는 국제 행사나 포럼 등에 참여하여 스페인의 예술 활동을 홍보한다.
4. 전시회 및 문화 활동 : 독자적 혹은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 공연, 출판물, 상영회, 콘서트, 프리젠테이션, 문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5. 스페인 문화의 국제화 : 스페인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그램(PICE, Programa para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Cultura Española)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페인 문화의 가능성을 장려한다. 예술작품과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등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외의 예술가들의 스페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페인의 축제, 행사, 박람회 등에서 제공되는 스페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www.accioncultural.es/es/progPICE)
6. 예술가, 창작자 레지던스 :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시간과 공간, 작업 수단을 제공하여 다른 창조 예술 분야와의 접촉을 장려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www.accioncultural.es/en/programme_of_residencies)

문화창작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민간 단체, 기관, 에이전시, 전문가라면 AC/E에 프로젝트의 협력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스페인 예술의 해외 진출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로, 제안서는 실행 초기 단계, 외부에 공개되거나 발표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AC/E의 대표는 Fernando Benzo Sáinz(2016~) 이다.

* TIP : AC/E는 한국의 토지문화관과의 협약을 통해 문학 분야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교환, 한국의 주요 페스티벌(공연, 전시, 영화 등)에 참가하는 스페인 예술가들의 후원, 한국의 국제교류재단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전시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스페인에 진출하려는 예술가보다 스페인과 협력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유용한 기관이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La Red Española de Teatros, Auditorios, Circuitos y Festivales de Titularidad Pública		
유형	비영리협회	장르	문화공간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0년
기관현황	스페인 전역 154개 공공극장(700여개 문화공간)		
홈페이지	https://www.redescena.net/home/index.php		

스페인 공공극장 및 축제 네트워크(La Red Española de Teatros, Auditorios, Circuitos y Festivales de Titularidad Pública, 이하 La RED)는 2000년 2월 INAEM과 공동 협약에 따라 설립된 스페인 공연 예술 분야의 비영리협회로, 유럽공연예술회의(IETM)의 회원기관이기도 하다.

La RED는 공연예술 분야를 육성하여 대중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공공 공간과 제작 파트를 만나게 하여 양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 국제교류의 교섭 기관이자, 예술생태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문화정책들의 발안을 통해 창작과 제작, 유통, 홍보 및 협력을 위한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기획사들의 지식과 정보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La RED 로고
(출처 : La RED 홈페이지)

La RED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관객의 개발과 교육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 극장 프로그래밍을 보장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과 유럽 및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현재 La Red의 회원기관으로 스페인 전역 154개의 공공 극장들과 12개 지역의 예술협회가 함께 하여 총 700여개의 공간이 포함된다.

La RED는 문화예술과 사회, 경제,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Danza a Escena, Escuela de Verano, Redescena 등의 우수한 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Danza a Escena'는 무용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State Federation of Companies and Dance Companies (FECED)와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무용단체와 La RED 소속 기관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례비의 일부를 La RED가 지불하는 프로젝트이다. '여름학교 (Escuela de Verano)'는 무대기술과 경영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 여름에 진행되는 특별 교

육프로그래이다.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스페인의 공연예술시장인 MERCARTES 역 시 La RED의 프로젝트이다.



Danza a Escena 소개자료 표지
(출처 : La RED 홈페이지)



여름학교 소개자료 표지
(출처 : La RED 홈페이지)

* TIP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관/단체명	CASA ASIA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류재단		
유형	정부기관	장르	문화, 공공외교
운영주체	CASA ASIA 컨소시엄(스페인 외교부, 카탈루냐정부, 바르셀로나시, 마드리드시)		
소재지	바르셀로나	설립년도	2001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casaasia.es/		

기관 및 단체



카사 아시아는 스페인 외교통상부의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카탈루냐정부, 바르셀로나시, 마드리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1년 설립한 기관으로 스페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아시아에 대한 지식 및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카사아시아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환경이슈에 대한 토론 및 분석, 아시아와 스페인 사이의 더 많은 지식에 기여하는 활동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둘 사이의 관계 개발을 도모한다.

카사아시아의 미션은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아시아 태평양과 스페인의 시민 사회 간의 유대를 촉진하며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보다 쉽게 교류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화 및 문화교류를 창출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지역 및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CASA ASIA의 문화예술과 관련 활동들로는,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소개하는 Barcelona Coral Asia 프로젝트, 젊은 층을 위한 포럼시어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술가 초청 공연예술

프로젝트와 토론프로그램, 아시아 대표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Bamboo School과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아시아 문화축제인 아시아페스티벌(Festival Asia)은 카탈루냐에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만나 볼 수 있는 축제로 2002년 시작되어 아시아 각국의 전통 공연 및 현대무용, 락, 현대연극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아시아 음식 시식 및 영화, 워크샵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Casa Asia Film Festival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CASA ASIA 본부 건물 외관(출처 : 카사아시아 페이스북 페이지)

아시아 각국과 더 나은 상호 이해를 위한 공공외교 포럼인 TRIBUNE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11회 한국-스페인 TRIBUNE 축제에는 국제교류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함께 했다.

* TIP : 한국 미술작가들의 전시회도 자주 개최된다. 2016년에는 Cody Choi의 전시가 말라가에서 진행되었고, 지난해에는 백남준 전시회를 주최한 바 있다.

기관/단체명	CENTRO BOTÍN / 보틴센터		
유형	민간 문화재단	장르	미술, 예술교육
운영주체	보틴재단		
소재지	산탄데르	설립년도	2017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fundacionbotin.org/ https://www.centrobotin.org/		

기관 및 단체

보틴재단(FUNDACIÓN BOTÍN)은 산탄데르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4년 Marcelino Botin이 설립한 민간재단이다. 칸타브리아 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학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동향 연구소(Observatoria de Tendencia)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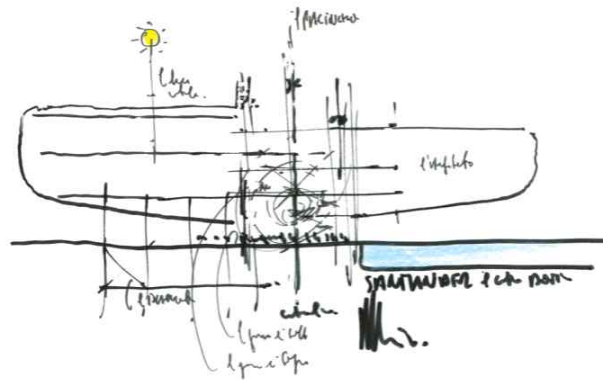


보틴센터 전경(출처 : 보틴센터 홈페이지)

보틴센터(CENTRO BOTÍN)는 보틴재단이 국제전시회, 워크숍 및 장학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개관하였으며, 연구 및 교육, 전시의 세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틴센터의 설립목적은 예술을 통해 산탄데르 지역의 경제,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하고 감성지능을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활용하여 창의성과 창의력을 일깨우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보틴센터는 보틴재단이 예일 감성지능센터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호기심과 상상력을 깨우고 놀이와 학습을 장려하는 아동, 청소년, 가족 및 성인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보틴센터 설계 스케치(출처 : 보틴센터 홈페이지)

센터의 서쪽건물에는 2500m² 규모의 전시공간이 있다. 동쪽건물에는 300석의 공연장과 4개의 워크숍룸이 있으며, 건물의 서쪽 끝에 위치한 야외 원형극장과 보틴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페레다공원(Pereda Gardens)에서도 공연과 영화상영, 콘서트,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탄데르의 랜드마크로 언급되는 보틴센터 건물은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하였고 조경디자이너는 Fernando Caruncho가 맡았다.

보틴센터 주변의 연못에는 스페인 산탄데르지역 출신으로 스페인 국립미술상을 수상한 Cristina Iglesias의 작품 “Desde lo subterráneo”가 설치되어 있다.



From the underground, 2017. Cristina Iglesias. ©Luis Asin

(출처 : 보탄센터 홈페이지)

* TIP : 한국 미술작가들의 전시회도 자주 개최된다. 2016년에는 Cody Choi의 전시가 말라가에서 진행되었고, 지난해에는 백남준 전시회를 주최한 바 있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Fundación Bancaria Caixa d'Estalvis i Pensions de Barcelona, "la Caixa" / 카이샤 은행 재단		
유형	민간재단	장르	복합
운영주체	카이샤 은행		
소재지	바로셀로나	설립년도	1904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caixaforum.es/es/madrid/home https://www.fundacionbancarialacaixa.org/corporate/home_es.html		

카이샤 재단은 카이샤은행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2014년 6월 설립되었다. 카이샤은행 1904년 설립된 카탈루냐 노령저축 연금펀드와 1944년 설립된 바로셀로나 저축은행이 1990년 합병되어 만들어진 스페인의 주요은행 중 하나로, 카이샤 재단의 전신은 1904년에 만들어져 카이샤 은행이 운영하던 비영리재단이다.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본 재단의 2018년 예산은 5억2천만유로(약 7000억원)로 그 중 60%는 사회사업, 20%는 연구사업, 20%는 문화/과학 사업에 활용된다(2016년 기준).

주요 활동분야는 사회소외계층의 근로 장려, 장학제도, 문화와 과학 행사, 사회 통합, 환경, 건강 관련 연구, 말기환자 케어, 어린이 교육 연구(CaixaProinfancia), 자원봉사, 국제협력 등이다.

카이샤재단의 장학프로그램은 1982년 34명을 지원(€368,000)하며 시작되어 조금씩 숫자를 늘려나가 2012년에는 1천5백만유로 이상의 예산이 운영되었다. 스페인 학생들의 독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일본과 중국으로의 유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스페인 내 장학금과 박사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CaixaProinfancia는 빈곤과 사회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7년 시작되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스페인 10개 도시의 20여만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과 구직자 매칭프로그램(Labor Insertion Program)과 저소득 젊은이와 노년층, 가족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임대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카이샤 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 카이샤포럼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비롯하여 세비야, 지로나, 레리다, 팔마, 타라고나, 사라고사 등 스페인 여러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알코벤다스의 코스모 카이샤(Cosmo Caixa)는 인터랙티브 과학 박물관으로 2006년 유럽박물관포럼이 선정한 '올해의 박물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매해 콜렉터, 갤러리, 예술가를 선정하여 '예술가와 후원자(Arte y Mecenazgo)' 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제작하고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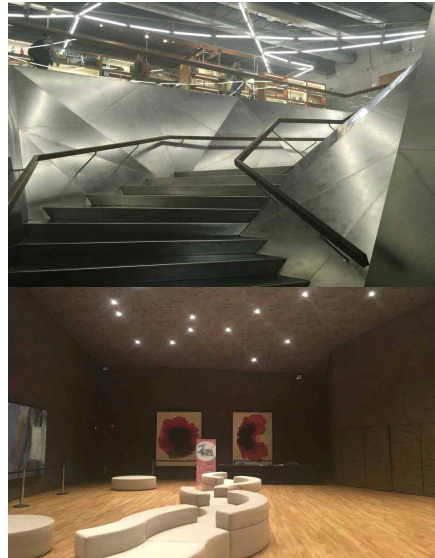
예술적 창의성과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결합한 '변화를 위한 예술(Art for 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분야의 창의적 프로세스를 사회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과 레이나소피아미술관, 티센미술관 근처에 위치한 CAIXA FORUM Madrid는 발전소와 주유소로 사용되던 오래된 공간을 건축가 Herzog & de Meuron의 손길로 7년간의 공사를 마친 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2008년 개관하였다. Patrick Blanc 과 Igor Mitoraj이 디자인한 24미터 높이의 수직 정원(Green Wall)에는 250종의 15,000여 식물들이 심겨있다.

카이샤포럼 마드리드의 전시공간에는 동시대예술을 기반으로 20세기 초반 작가들의 회고전들이 주로 열리고 있다. 상설 전시보다는 순회 전시, 특별전을 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라도 미술관, 카탈루냐 국립미술관(MNAC) 등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걸작전시나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 중세 작품들 역시 선보이고 있다.



카이샤 포럼 마드리드 입구



카이샤 포럼 마드리드 내부



카이샤 포럼 바르셀로나 내부 및 외부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마타데로 마드리드 / Matadero Madrid		
유형	복합문화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스페인정부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www.mataderomadrid.org/ https://es.wikipedia.org/wiki/Matadero_Madrid		

공간

마타데로 마드리드는 1996년까지 도살장이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2007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픈하며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스페인 문화부와 마드리드시의 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마드리드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무용단(National Dance Company, CND)과 국립발레단(National Ballet of Spain)의 사무실 등이 위치하며 마드리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 만자나레스(Manzanares) 강 옆의 165,415㎡(5만여평)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타데로 마드리드는 영화관, 전시장, 공연장, 레지던스, 식물원, 카페 등으로 재탄생된 이후 마드리드 시민 뿐 아니라 건축,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2012년 가을부터 마타데로마드리드는 마드리드시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 기관인 마드리드 데스티노(Madrid Destino Cultura, Turismo y Negocio)가 운영하고 있다.

(사진 1-4 마타데로 마드리드 외관)



공간

공간명	카날극장 / Teatros del Canal		
유형	공연장	장르	복합
운영주체	마드리드시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9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www.teatros canal.com/		

카날극장은 마드리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 2009년 2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신작과 고전,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Juan Navarro Baldeweg가 설계한 극장 건물은 스페인비엔날레 건축상을 받은바 있으며, 최첨단 기술 장비들과 여러 형태의 공연에 유연하게 적용가능 한 무대 시설 등은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플라멩코,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마드리드의 가을-봄축제를 비롯하여 마드리드댄스페스티벌, 어린이극축제(Teatralia), 플라멩코축제(Suma Flamenca) 및 오페라축제(Opera de Hoy) 등 주요 페스티벌의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장은 레드룸, 그린룸, 블랙룸 3개의 극장과 카날댄스센터(Canal Dance Center, CDC)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장 중 가장 큰 레드룸은 843석으로 무대사이즈는 32 * 17 미터이고, 넓은 시야와 음향 시설을 자랑한다. 무대크기 20 * 10미터의 그린룸은 경우에 따라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 프로시니엄 형태로는 444석, 양면객석을 쓸 경우 605석, 4면 객석을 모두 쓸 경우 778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블랙룸은 무대 22* 8미터, 18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다.

현재 예술감독은 알렉스 리골라(Alex Rigola)와 나탈리아 알바레즈 시모(Natalia Álvarez Simó)가 함께 맡고 있으며, 그 중 나탈리아는 무용과 라틴아메리카 창작 공연 및 레드룸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진1 : 카날극장 외관)



(사진2 : 카날극장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간

공간명	El Círculo de Bellas Artes de Madrid (CBA)		
유형	복합문화센터	장르	복합
운영주체	Circulo de bellas artes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1880년
공간현황	전시실 3개, 공연장 1개, 다목적홀 7개, 도서관 1개, 영화관 1개, 연습실 1개, 당구장 및 게임장 1개, 라디오방송국 1개, 서점 1개, 레스토랑 2개		
홈페이지	https://www.circulobellasartes.com/		

Círculo de Bellas Artes(CBA)는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로, 스페인 유명 건축가인 팔라시오스(Antonio Palacios)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건물과 지붕 위 미네르바 여신 조각으로 유명한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이며,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CBA 건물 외관



CBA 건물 입구



CBA 건물 내부 홀

“예술과 공공의 이익 보호 센터”를 주창하며 1880년 Juan Martínez de Espinosa 등의 예술가들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 문화기관인 CBA는 유럽의 주요 민간문화센터 중 하나로, 조형 미술에서 문학, 과학, 철학, 영화와 공연까지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립 때부터 CBA는 뛰어나고 혁신적인 예술적 경향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CBA는 주요 예술가들의 문화적 바탕이 되었는데, 노벨상 수상자인 하신토 베나벤테(Jacinto Benavente y Martínez)와 카를로스 아르니체스(Carlos Arniches)는 CBA의 이사회 일원이었고, 젊은 피카소는 그림 수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스페인 유명 작가 라몬 바예 잉클란 역시 이 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1926년에 완공된 CBA빌딩은 공연장과 4개의 전시장, 영화관 및 6개의 다목적홀, 1개의 도서관, 1개의 작업장과 게임룸 등이 함께하는 복합시설이다.

메인 공연장인 페르난도로하스 극장(Teatro Fernando de Rojas)은 502석(1층 311석, 2층 87석, 3층 104석)의 극장으로 연극, 콘서트,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하다. 연회장(Salón de Baile)은 콘서트와 패션쇼, 연회 및 전시, 영화 상영 등이 가능하며, 매해 CBA의 전통적인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목적홀 중 하나인 Columns 룸(Sala de Columnas)은 18개 기둥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공연 및 전시, 리셉션, 학술행사 등이 가능하며, 공연장으로 활용시 300석, 스탠딩으로 450석, 컨퍼런스 200석 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라몬고메스 룸(Sala Ramón Gómez de la Serna), 바예잉클란룸(Fernando de Rojas), 마리아삼브라노 룸(María Zambrano Room), 뉴룸(Sala Nueva), 회의실(Sala de Juntas) 등의 다목적홀이 5층에 자리잡고 있다.

전용 전시 공간으로는 미네르바, 피카소, 고양이룸 등이 있고, 영화상영을 위한 214석 규모의 시네마스튜디오(Cine Estudio)와 15,000여권 이상의 도서 대여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도 내부에 위치해 있다.

(사진출처 : CBA 홈페이지)



페르난도로하스 극장



Columns 룸

CBA는 다양한 강좌와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인문학 컨퍼런스에는 권터그라스, 유르겐 하버만스, 조지 스타이너, 등이 참여한바 있다. 회화, 연극, 영화 워크숍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한국 민화와 한국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CBA가 La Fabric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원(Escuela SUR)은 2014년 개교하였으며 미술전문가 과정(석사과정)과 미술기초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공간명	Palacio de Congresos Granada / 그라나다컨퍼런스센터		
유형	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 S.A		
소재지	그라나다	설립년도	1992년
공간현황	대극장/중극장/야외극장, 다목적 및 컨퍼런스 홀, 전시실 등		
홈페이지	http://www.pcgr.org/		

그라나다 컨퍼런스센터(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는 안달루시아의회와 그라나다 시의회가 1987년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세비야 국제박람회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오픈하였다. 2012년부터는 민간기관인 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 S.A이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를 맡은 빌바오 출신의 유명 건축가인 Juan Daniel Fullaondo는 알함브라 궁전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그라나다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라나다 컨퍼런스 센터는 예술과 혁신의 만남을 지향한다. 혁신적인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열려있는 지식의 아고라이자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그라나다 시민들에게 창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발레, 연극 등 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규모의 컨퍼런스와 박람회,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컨퍼런스센터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석 규모의 가르시아 로르카 극장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공연장 중 하나이고, 638석의 야외 극장과 547석 규모의 마누엘 팔라 극장이 있다.

컨퍼런스를 위한 마차도-피카도룸은 같은 모양의 2개의 공간이 분리되거나 합쳐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컨퍼런스를 위한 공간이다. 알베니스-마추카룸 역시 각 160석 규모의 공간

이 합쳐지거나 분리될 수 있다. 그 외에 전시를 위한 2개 홀, 다목적홀 9개, 소규모 행사를 위한 VIP룸과 프레스룸, 8개의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Palacio de Congresos Granada 외관

공간명	Teatro Cervantes de Málaga / 말라가 세르반테스 공연장		
유형	공연장	장르	복합(전체)
운영주체	말라가시		
소재지	말라가	설립년도	1870년
공간현황	1,104석 공연장		
홈페이지	http://www.teatrocervantes.com/		

말라가의 세르반테스 극장(Cervantes Theatre)은 Costa del Sol의 중심 경관 공간 중 하나로, 1870년에 개관하였다.

19세기 후반 프린스알폰소극장이 화재로 소실된 후, 건축가 Gerónimo Cuervo의 지휘아래 새로 지어져 지역극장 중 최대인 2,300여석 규모로 개관하였다. 내부 장식은 Gerónimo Cuervo와 Bernardo Ferrándiz, Antonio Muñoz 등이 맡았다.

1950년대 부터 그 기능을 잃고 영화관과 바 등으로 활용되다가, 1984년 말라가 시의회에 인수된 후 리모델링을 거쳐 1987년 1,171석의 극장으로 재개관하였다.

현재 세르반테스 극장은 1,104석으로 운영되며 클래식 음악, 고전연극, 코미디, 오페라, 발레, 재즈 콘서트, 플라멩코, 가사, 록, 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국제재즈페스티벌(Festival Internacional de Jazz), 여름 Terral 축제(festival de verano Terral) 등 자체 프로그램 및 에헤가라이극장(TEATRO ECHEGARAY)과 협력한 Factoría Echegaray 프로그램을 통해 연 20만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하고 있다.

공간



말라가 세르반테스 극장 외관

(출처 : 위키미디어,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3356538>)

* TIP : 올해 10월 한국 김복희 무용단의 <피의 결혼>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공간명	Corral de Comedias / 코랄 데 코미디아스		
유형	공연장	장르	연극
운영주체	아바디아(Teatro de La Abadía)재단		
소재지	알칼라데에르나레스 Alcalá de Henares	설립년도	1602년
공간현황	객석 3층, 총 220석		
홈페이지	http://www.corraldealcala.com/es/home/		

공간

Corral de Comedias(코랄 데 코미디아스) 공연장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장 중 하나이다. 1601년 목수 프란시스코 산체스 (Francisco Sánchez)가 알칼라 데 에르나레스 시청의 의뢰로 야외공연장으로 건축한 이 건물은 1602년에 오픈된 이래 다양한 유럽의 대중극을 공연해 왔다.

개관 당시 파티오(중앙 정원)와 객석,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박스석 등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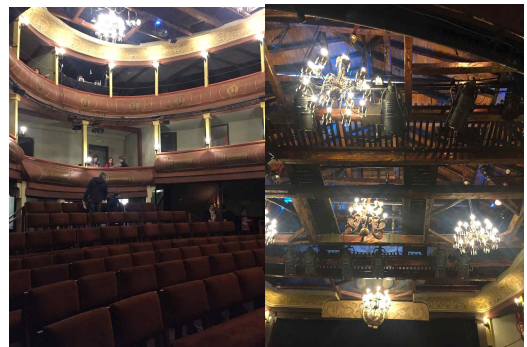
18세기에 조명을 위한 지붕이 설치되었고, 음악 공연을 위한 음향이 개선되며 신고전주의 공연장으로 바뀌었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말발굽 모양의 안뜰 객석과 회화로 장식된 천장 등이 추가되며 프로시니엄 극장이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며 영화상영을 위한 극장으로 바뀌었고, 7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며 수십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1981년부터 코랄 데 코미디아스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재원이 조달되며 다시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3년 재개관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4세기를 이어온 역사적 연극 박물관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05년부터 공연장 관리 및 공연 프로그래밍은 마드리드 시의회의 위임을 받은 Teatro de La Abadía가 담당하고 있으며 예술감독인 JOSÉ LUIS GÓMEZ(호세 루이스 고메스)는 우엘바 출신의 스페인을 대표하는 마이니스트, 배우, 연출이다.

현재 코랄 데 코미디아스의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복합 공연 프로그램, 특히 공간이 갖는 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코랄 데 코미디아스 외관



코랄 데 코미디아스 내부모습(객석, 천장)

* TIP : 매해 7월 개최되는 알칼라 데 에르나레스 고전 연극제의 주요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축제 참가 신청은 1~2월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http://www.clasicosenalcala.net/2018/home/>

공간

공간명	La Tabacalera / 타바카레라		
유형	문화공간	장르	시각, 공연
운영주체	Subdirección General de Promoción de las Bellas Artes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9년
공간현황	전시장, 스튜디오, 워크샵 룸 등		
홈페이지	https://www.promociondelarte.com/tabacalera/ http://latabacalera.net		

2009년 개관한 마드리드의 Tabacalera(La Tabacalera, LTBC)는 담배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 유적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다. 1780년부터 1792년까지 지어진 빌딩은 왕실 주류, 카드놀이 공장으로 설계되었으나, 1809년 담배 공장으로 전환되어 20세기 말까지 운영되다가 2000년 이후 비워진 후 2003년 교육문화체육부가 인수하였다.



CSA la Tabacalera
입구

Espacio Promoción del
Arte 입구



Espacio Promoción del Arte 공간 내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공간은 CSA la Tabacalera와 Espacio Promoción del Arte의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문화부는 2007년 국립시각예술센터(Centro Nacional de Artes Visuales, CNAV)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문제를 겪게 되었고, 건물의 용도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건물이 위치한 Lavapiés 주민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건물 중 약 30%는 “타바카레라자치센터(Centro Social Autogestionado La Tabacalera)”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시낭송, 사진과정, 콘서트와 같은 자체적인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Espacio Promoción del Arte는 교육문화체육부 산하 미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사회센터로, 기획전과 사진, 현대미술과 비주얼 아트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간은 1200m²의 대형 전시 공간인 Sala Principal, 예술가들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쇼룸인 La Fragua와 스튜디오, 현대미술과 비주얼 아트, 사진의 워크샵이 진행되는 Sala Ideas 등이 있다.

LTBC는 타바카레라자치센터(Centro Social Autogestionado La Tabacalera) 운영프로젝트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으며 구성 인원 역시 민족, 성별 등이 다양하다. 이들은 격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

을 결정하고, 3개월마다 간담회를 진행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한다. 그 외에 세부 분야 (프로그래밍, 재정, 홍보, 유지보수 등)의 회의가 별도로 진행된다.

공간

공간명	La Casa Encendida / 카사 엔센디다		
유형	문화센터	장르	복합
운영주체	Fundación Montemadrid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2년
공간현황	공연장, 영화상영관, 전시장 등		
홈페이지	https://www.lacasaencendida.es/		

Casa Encendida(카사 엔센디다)는 Fundación Montemadrid(몬테마드리드 재단)가 운영하는 사회문화센터로, 2002년 12월에 개관하였다. 전위적인 현대 미술 전시와 공연과 영화, 동시대 창작예술의 또 다른 표현 방식들을 보여주는 문화프로그램, 환경과 연대와 관련된 강좌, 워크숍 등이 주로 이루어진다. 젊은 창작자들의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1911년 이탈리아 건축가인 Fernando Arbós y Tremanti 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초기에는 은행 건물로 쓰이기도 했다.

중앙 정원 주변으로 빌딩이 배치된 형태로, 노출 벽돌과 화강암을 조합하여 대칭형태의 건물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12M * 4M * 높이 14M 규모의 실내 중정은 전시장과 공연장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167석 규모의 공연장과 72석 규모의 영화상영공간이 있다. 4층의 다목적홀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공간 내부에는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정기간행물 도서관, 컴퓨터실 미디어 라이브러리와 카페 등이 있다.



CASA Encendida 건물 외부



CASA Encendida 건물 내부(파티오)

카사 엔센디다는 오늘날 가장 획기적인 예술적 표현, 교육과 철학과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원하는 전 연령의 관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예술, 연대, 환경, 교육의 4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변화 추세를 주목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 요구를 예측하는 문화센터로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공동체 연계 프로젝트, 협력지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 팀워크를 촉진하는 사회 센터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작 작업을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홍보와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하고 새로운 작업의 제작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사운드, 디지털 제작, 사진과 여러 후작업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성해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실험실도 보유하고 있다. 내부의 라디오방송국은 매해 3~4월 전국단위 라디오방송국인 Radio3와 공동주최하는 음악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Ⅲ.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stival Internacional Madrid en Danza / 마드리드 댄스페스티벌		
	유형	축제	장르	무용
	운영주체	마드리드 시청		
	개최시기	매해 11월	시작년도	1986
	개최도시	마드리드		
	참가규모	18개 공연(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www.madrid.org/madridanza/2017/elfestival.html		
	<p>올해 32회를 맞이한 마드리드무용축제가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주간 Teatros del Canal, Teatro de La Abadía, Teatro Real Coliseo de Carlos III 등 마드리드 주요 6개 공연장에서 개최된다.</p> <p>마드리드 무용축제는 그동안 클래식부터 아방가르드, 전통 발레에서 플라멩코, 무용극에서 현대무용까지를 망라하여 국내외 모든 분야의 댄스 스타일을 아우르며 다양한 무용단들을 소개해 왔다.</p> <p>세 번째 해를 맞은 Aida Gómez 예술감독은 그동안 예술의 확장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였고, 올해 프로그램 역시 스페인 무용단체들의 새로운 미학의 경향을 보여주고, 국내외 다양한 안무가와 댄서들이 함께하는 18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p> <p>올해 축제에는 Patricia Guerrero, Isabel Bayón, Daniel Doña, Antonio Canales, Sara Calero, Mariano Bernal 등 최고의 예술가들과 신진 예술가들이 함께 한다.</p> <p>해외 공연팀으로는 이탈리아국립 Ater balletto 무용단과 파리 오페라발레단, 불가리아 출신의 Kirilov Milev와 캐나다 안무가 Virginie Brunelle, 그리고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과 Mariinsky, Mikhailovsky 발레단 등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 / 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		
	유형	축제	장르	연극
	운영주체	알마그로국제연극제 재단		
	개최시기	매해 7월 6일~30일	시작년도	1978
	개최도시	알마그로		
	참가규모	50개 극단 102회 공연(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festivaldealmagro.com/es/home/index.php		
	<p>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는 1978년에 시작되어 올해 40회를 맞이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연극제로 라만차(La Mancha) 지역의 알마그로라는 마을에서 매년 7월에 열린다.</p> <p>스페인 연극의 황금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연극제는, 동서양의 16~17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연극들을 되살리고 보존하고 재평가하고 현대화하여 보급하기 위한 축제로, 스페인 황금시대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시대와 프랑스 신고전주의와 바로크, 일본의 노, 가부키 등 다양한 양식의 공연을 선보이며 매 해 6만 여명의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여러 한국 공연이 스페인 관객들과 만나기도 하였다.</p>			

이 축제는 창작자, 교사, 연구자, 비평가, 연출가, 배우, 프로듀서, 무대 디자이너, 기자, 기술 스태프 및 매니저 등 공연예술 전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로, 연극비평가회의, 국제 블로거 회의, 국제 예술경영자회의 등이 함께 개최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관객 창출을 위해 국제어린이연극경연대회와 젊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는 알마그로 OFF 등이 함께 진행된다.

1954년 발견된 코랄 드 코메디아(Corral de Comedias)는 스페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로크양식의 공연장으로, 새로 보존된 이곳을 중심으로 시립극장과 박물관, 광장 및 교회와 병원건물을 개조한 공간 등 마을 전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되며, 내년 축제부터는 40대 초반의 젊은 스페인 연출가인 Ignacio García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였다.



(사진1 : 알마그로 축제 중 코랄드 코메디아 극장의 공연)



(사진2 : 알마그로 축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 TIP : 2018년 행사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월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보자. 단, 16~17세기 배경 작품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작품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festivaldealmagro.com/es/uploads/convocatorias/41_01bases-programacion-oficial-1.pdf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Temporada Alta / 템포라다 알타 축제		
유형	축제	장르	공연, 영화, 전시 등
운영주체	재단		
개최시기	매해 6월	시작년도	1992
개최도시	히로나, 살트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www.temporada-alta.net/		

템포라다 알타(Temporada Alta) 축제는 매해 10월부터 12월까지 히로나와 살트 등 카탈루냐지방 도시의 주요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새로운 예술가들의 데뷔를 도우며, 스페인 최고의 예술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단골 연출가 피터브룩을 포함하여 얀 페브르, 안젤리카 리델, 크리스탄 루파, 알렉스 리골라, 클라우디오 톨카치 등 유명 연출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연극뿐 아니라 무용, 서커스, 영화 등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객들을 위해 그 영역을 확장하며 다채로운 라인업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97개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그 중에는 데클란 도넬란의 <십이야>, 알랭 플라텔 <Out of Context>, 로메오 카스텔루치 <Ethica> 등 해외 15개국, 18개의 해외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축제 사무국에서는 올해 작품 중 26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올해 템포라다 알타 축제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예술 교육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연 예술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는 축제의 모델을 계속해 가고 시민과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올해 축제에는 총 52,753명의 관객이 다녀갔고, 객석점유율은 90.54%에 달하였다.

현재 예술감독은 연극프로듀서인 살바도르 수니에르(Salvador Sunyer)로 그는 현재 살트-히로나 공연예술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다.

축제의 전체 예산은 3,189,113유로(약 40억)이며, 이 중 협찬/후원금 30%외에 공연수입금 21%, 카탈루냐 정부 지원금 22%, 히로나 시 지원금 19% 및 지방의회 지원금 8%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1 : 템포라다 알타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2 : 템포라다 알타 2017 포스터)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Madferia		
유형	공연예술마켓	장르	연극, 무용
운영주체	ARTEMAD		
개최시기	매해 1월	시작년도	2005년
개최도시	마드리드		
참가규모	참가자 350여명, 쇼케이스 16개 공연, 컨퍼런스, 워크샵 등		
홈페이지	http://www.madferia.com https://www.cofae.net/ferias.php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박람회로 올해 14회를 맞이한 MADferia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Matadero와 Kamikaze 극장, Cuarta Pared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MADferia는 공연예술 시장의 활성화와 증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1월에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스페인의 최신 공연예술 작품이 소개되며, 공연 분야 전문가들간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ARTEMAD가 주최하고, COFAE(La coordinadora de ferias de Artes escénicas del Estado / Coordinator of Fairs and Performing Arts of the Spanish State)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극장과 연계를 통해 공연 작품의 생산과 유통, 질적 제고를 장려하고, 극장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공연예술 프로덕션 연합회인 ARTEMAD(la Asociación de Empresas Productoras de Artes Escénicas de Madrid /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oduction Companies of Madrid)는 마드리드주의 공연제작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1996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30개의 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FAETEDA(La Federación Estatal de Asociaciones de Empresas de Teatro y Danza)의 소속단체이기도 하다.

MADferia는 공연예술 작품 중에서도 중소 규모의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작품 공모를 받은 결과 총 582편이 신청하였고, 그 중 16 작품을 선정하였다.

주요 공연 장르는 연극, 무용 및 현대 서커스 등으로 쇼케이스 공연은 마드리드 뿐 아니라 발렌시아, 갈리시아, 안달루시아, 아스투리아, 무르시아, 카탈루냐 및 발레아레스 제도 등에서 제작되었으며, 새로운 무대 언어를 찾는 스페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와 축제나 극장의 프로그래머와 제작사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라운드를 비롯하여 교육 워크샵,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등이 함께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인 1월 26일 저녁에는 마드리드 시내 각 극장에서 공연을 보도록 하는 Cartelera madrileña 행사가 열렸다.



MADFERIA 등록데스크(@MATADERO)



MATADERO NAVE10에서 진행된 쇼케이스 관람객

* TIP : 우리나라의 해비치 아트페스티벌과 비슷한 행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직 해외 작품이 소개되지는 않고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lamenco de jerez / Jerez Flamenco Festival / 헤레스 플라멩코 축제		
유형	공연축제	장르	플라멩코
운영주체	헤레스 시		
개최시기	2-3월	시작년도	1997년
개최도시	마드리드		
참가규모	헤레스 데 프론테라(Jerez de la Frontera)		
홈페이지	www.festivaldejerez.es https://www.spanish-fiestas.com/festivals/jerez-flamenco-festival/		

매해 2월에서 3월사이 세리주의 고장인 스페인 남부 헤레스에서 국제 플라멩코 축제가 열린다. 플라멩코의 고향은 안달루시아지역으로,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헤레스와 세비야, 카디스를 플라멩코 발상지로 지목하고 있다. 큰 집시 커뮤니티와 무어성을 특징으로 하는 헤레스의 독특한 매력과 매일 이루어지는 플라멩코 공연은 전세계 플라멩코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헤레스는 이런 예술적 기반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유명 플라멩코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로서 명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플라멩코 댄서와 가수, 기타리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학생들뿐 아니라 초보자와 노인들을 위한 플라멩코 워크샵과 강좌도 함께 진행된다.



2018 JEREZ 플라멩코 축제 포스터
(출처 : 축제 홈페이지)

공연은 주로 비야마르타(Villamarta) 극장을 중심으로 로메로 마르티네즈 광장(Plaza Romero Martinez)과 비야비센시오궁(Palacio de Villavencio), 보데가 로스아포 스톨레스(Bodega Los Apostoles) 등에서 진행되지만 Santiago 지역의 바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플라멩코 센터에서는 플라멩코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2018년 22회 국제 플라멩코 축제는 스페인 국립발레단의 플라멩코 공연으로 개막을 알렸다.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Flamenco, tradition and avant-garde'를 주제로, 플라멩코의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일본,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와 만나 플라멩코가 확장되는 공연들을 선보였다. 또한 40여개의 플라멩코 워크샵에는 3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전체 관객의 50%이상이 해외에서 온다고 한다.



JEREZ FESTIVAL 2018 Antonio Rey 공연사진
Fotografías de Javier Fergo para Festival de Jerez
(출처 : 축제 홈페이지)



JEREZ FESTIVAL 2018 /스페인 국립발레단 공연사진
Fotografías de Javier Fergo para Festival de Jerez
(출처 : 축제 홈페이지)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 유럽 아동극축제 FETEN		
유형	축제	장르	아동극, 야외극
운영주체	히혼 시		
개최시기	2월	시작년도	1991년
개최도시	히혼 시		
참가규모	2018년 10개국 82개 공연		
홈페이지	http://feten.gijon.es/		

스페인 북부의 히혼(Gijon)에서 개최되는 유럽아동극축제 FETEN(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The European Performing Arts Fair for Children)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FETEN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권 아동극의 프로그래머와 극단들,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의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공연예술 작품들의 질적 향상과 품격을 높이하고자 1991년에 시작되었다. FETEN은 공연, 프리젠테이션, 부스전시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하는 아동 및 청소년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토론과 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문화의 소통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FETEN은 젊은 관객들에게 공연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는 스페인과 유럽의 공연을 선보이고,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아이들이 창작 공연의 관객이 되도록 돕고 있다. 공연단체들에게는 그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머에게 극장조건과 시설에 맞는 공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소통과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FATEN 2018 메인 이미지
(출처 : FETEN 홈페이지)



FETEN 2018 최고작품상 수상작 <Tierra Efímera>
(출처 : Colectivo Terrón극단 홈페이지)

올해 27회를 맞이한 FETEN 축제에는 10개국 82개의 공연이 선정되어 공연되었다. 프로그램에는 클래식 음악부터 아동극, 거리극, 그림자극,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컨퍼런스, 워크샵, 체험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고, 해외작품으로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작품 등이 소개되었다.

행사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5시반부터 열린 시상식에서는 Colectivo Terrón극단의 <Tierra Efímera>가 최고작품상을 받았다.

FETEN의 예술감독인 마리안 오사카(Marián Osácar)는 히혼시 문화재단 예술진흥부서의 책임자로, 마드리드 왕립예술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했고, 연출이자 배우, 연극 교사로 활동해왔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Valladol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mana Internacional de Cine de Valladolid(스페인어) / 바야돌리드 국제 영화제		
유형	영화제	장르	예술영화
운영주체			
개최시기	10월	시작년도	1991년
개최도시	바야돌리드 (Valladolid)		
참가규모	2017년 (제62회) : 총 233편		
홈페이지	http://seminci.es/ http://www.kobiz.or.kr/new/kor/02_overseas/festival/festivalView.jsp?type=FESTIVAL&cd=20061010&seq=21646		

Seminci 혹은 Semana로도 알려져 있는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제는 1956년 시작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있는 영화축제 중 하나이다. 주로 독립영화와 작가영화를 소개하며, 첫 해에는 부활절과 연계하여 바야돌리드 종교 영화 주간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주간으로 바뀌었다가, 참가 영화와 프로듀서들의 참가가 늘어나며 종교적 색을 제거하고 일반 영화제로 발전하였다.



바야돌리드 영화제 로고

(출처 : 영화제 홈페이지)

초기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나 촬영감독 등을 소개해 왔으며, 잉그마르 베르히만(Ingmar Bergman), 루이스 부뉴엘(Luis Buñue),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 안제이 바이다(Andrzej Wajda),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 에르마노 올미(Ermanno Olmi) 일마즈 귀니(Yilmaz Güney),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 스탠리 도넨(Stanley Donen), 막스 오펔스(Max Ophüls), 켄 로치(Ken Loach), 미조구치 겐지(Kenji Mizoguchi), 오즈 야스지로(Yasujirō Ozu) 등의 감독과 아드만 스튜디오(Aardman Animations) 등의 제작사 등이 이 영화제를 통해 스페인에 알려졌다.

바야돌리드 영화제는 늘 위험을 감수한 프로그래밍의 혁신을 시도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응시하며, 산업이나 상업이 아닌 영화 예술 자체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으로 영화제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90년대 후반부터 픽션, 다큐멘터리가 애니메이션, 단편과 함께 상영되고 있다.

한국영화로는 2004년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황호길 감독의 단편 영화 <감자>가 초청된 바 있으며, 2014년 제59회 영화제에는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명예상(Espiga de Honor)을 수상한 바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dFERIA / 디페리아		
유형	공연축제	장르	공연예술축제
운영주체	도노스티아 쿨투라 (Donostia Kultura)		
개최시기	3월	시작년도	1988년
개최도시	산세바스티안		
참가규모	33개 공연		
홈페이지	https://www.dferia.eus/2018/ https://elpais.com/cultura/2018/03/01/actualidad/1519924427_388332.html		

dFERIA는 바스크 지역 산세바스티안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시장으로 실내에서 진행되는 우수한 무용, 연극 공연을 주로 소개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정보와 예술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직간접적인 사업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상품을 유통하는 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 뿐 아니라 유럽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적', '혁신적', '다양함'을 특징으로 하는 dFERIA는 1988년 1월에 처음 개최 되었고, 91년까지 1~2월 사이에 개최되었다. 이후 6년간 경제적문제로 중단되었다가 바스크 주정부 문화부와 San Sebastian 시의회 지원으로 1998년 재개되었고, 2007년 빅토리아 에우헤니아 극장(Victoria Eugenia Theatre)이 합류하며 보다 다양한 공연을 소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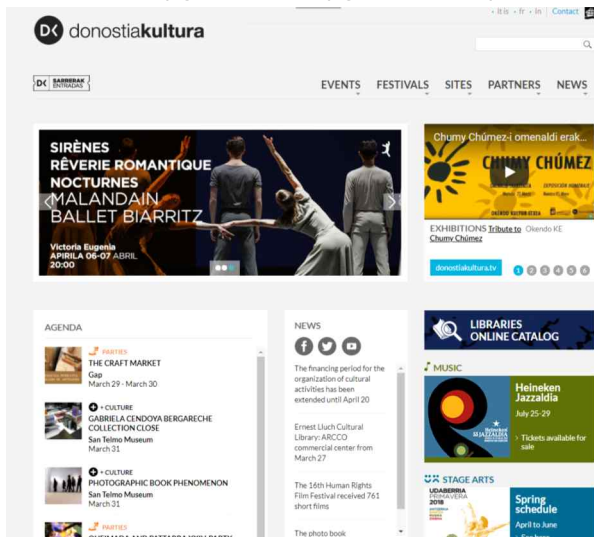


dFERIA 홈페이지

2018년 dFERIA의 주제는 “금기(TABU)로 33개 단체의 37개 공연이 진행되었고, 그 중 64%는 초연공연이었다. 83%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며 14,400명이 참관하였다. 스페인을 비롯하여, 폴란드,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국내외 520여명의 예술가가 참가하였다.

장르별로는 무용이 42%로 가장 많았고, 연극이 40%, 18%는 복합 분야였다.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공연은 바스크 지역 공연이 51%, 스페인 타지역 공연이 19%, 해외가 30%를 차지했다.

dFERIA를 운영하는 도노스티아 쿨투라(Donostia Kultura)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 내 총 18개 공간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dFeria 외에 Teatro de Bolsillo 소형 연극제, Literaktum 문학축제, Olatu Talka 문화 축제, Heineken Jazzaldia 재즈 페스티벌, Donostikluba 라이브클럽 페스티벌, Quincena Musical 클래식 음악제 등의 축제와 빅토리아 에우헤니아 극장, 프린시팔 극장, 가즈테스세나 공연장, 이마놀 라르사발 아레토아 극장, 인차우론도 극장, 쿠르살 극장, 산텔마 박물관, 타바칼레라 창작 공간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도노스티아 쿨투라 (Donostia Kultura) 홈페이지

* TIP : 2019년 DFERIA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ria de Sevilla(April Fair) / 세비야 봄 축제		
유형	축제	장르	시민축제
운영주체	세비야시		
개최시기	4월	시작년도	1847년
개최도시	세비야		
참가규모	CASETA(까세타) 3,000여개, 일 500,000명 방문		
홈페이지	https://feriadesevilla.andalunet.com/ https://www.sevilla.org/ayuntamiento/competencias-areas/area-de-seguridad-movilidad-y-fiestas-mayores/fiestas-mayores/feria-de-abril/feria-1		

1847년에 시작되어 매해 4월에 개최되고 있는 세비야 봄축제는 보통 부활절 이후 두 번째 토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박람회의 주 공간은 Los Remedios이고 축제기간 동안 세워지는 수많은 부스(CASETA,까세타)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세비야의 전통 춤인 세비야노를 추며 축제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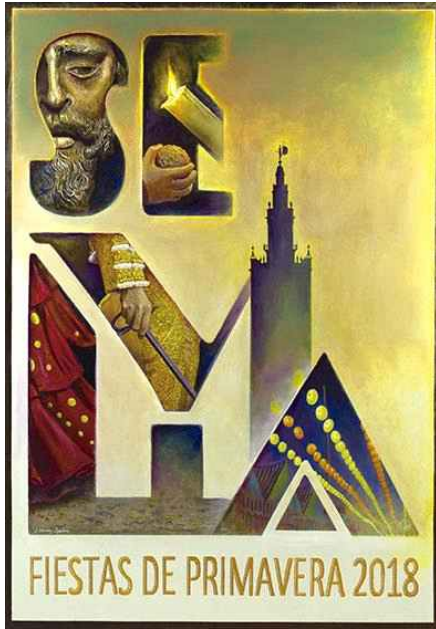
축제기간 중 매일 50만명 이상 방문하는 세비야 봄축제의 역사는 1254년 알폰소 10세가 개최한 두 차례의 박람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제의 직접적인 기원은 지역 상인들이 1847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행사의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발견된다. 프라도 데 산세바스티안에서 개최된 첫 번째 박람회에는 19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초기 세비야 축제는 가축 등 농업 시장의 특징을 지녔다. 1849년 박람회 지역이 도로가 개통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방문객 역시 늘었다. 1850년부터는 노점상이 생기고 선술집과 매점이 생겨났다. 기록에 따르면 1858년의 부스는 119개로 크게 늘었고, 이후 시장보다 페스티벌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1890년 화가 가르시아 라모스(Garcia Ramos)가 첫 번째 박람회 포스터를 디자인했고, 1913년부터는 3일간 개최되던 축제가 4일로 확대되었고, 1950년대 초부터는 6일간 개최되었다. 2017년부터는 축제기간을 더 늘려서 8일간 진행하고 있다. 1937년부터 39년까지 스페인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박람회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지만, 1973년부터 Los Remedios의 64,000m² 규모의 공간으로 옮겨졌고, 현재의 전체 공간은 너비 4미터 깊이 6~8미터 크기의 부스를 1000개 이상 수용할 수 있는 275,000m²의 공간에서 개최되고 있다.

부스는 기업이나 협회, 공공단체 및 개인이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일반 부스에는 소속원이나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 세비야 시의회 등의 공공 기관이나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 사회적, 정치적 단체의 부스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기도 하다.

축제기간 중 세비야 거리와 박람회장은 플라멩코 의상을 입은 여성과 컨트리 슈트를 입은 남성들로 가득찬다. 그들은 플라멩코와 비슷한 세비야의 전통 음악인 세비야나에 맞추어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긴다. 축제기간 중에는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신 마차가 운행된다.

투우 역시 빠질 수 없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인데, 1847년 1회 박람회가 개최되기 전날 투우가 예정되어 있었고, 요즘에는 박람회 2주전에 Real Maestranza de Caballería 투우장에서 투우 시즌이 시작된다.

이사벨 2세 여왕, 알론소 12세와 13세, 카를로스 1세 등 스페인 왕뿐 아니라 프랑코(Francisco Franco), 모나코 왕자와 그레이스 켈리 왕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세비야 봄축제를 방문한 바 있다.



2018 세비야 봄 축제 포스터
(출처 : 축제 홈페이지)



2018 세비야 봄 축제 입구
(출처 : 축제 홈페이지)

* TIP : 4월부터 세비야를 비롯한 안달루시아 지역은 연간 축제가 계속된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La noche de los Teatros / 연극의밤		
유형	공연, 축제	장르	연극, 복합
운영주체	마드리드주, 마드리드 내 주요 공연장 및 공연단체		
개최시기	세계 연극의날 전후	시작년도	2008년
개최도시	마드리드 및 스페인 전역		
참가규모	90여개 공연장, 150여개 공연		
홈페이지	http://www.madrid.org/lanochedelosteatros/ https://www.circulobellasartes.com/espectaculos/noche-max-estrella-teatros/		

연극의 밤 행사는 극장과 공연제작 단체를 지원하고 공연을 홍보하며,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극장에 가도록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의 후원으로 2007년부터 세계연극의 날인 3월 27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다.

올해 11회를 맞은 마드리드 연극의 밤 행사는 마드리드 내 수십 개의 주요 극장 및 극단,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4월 7일 토요일 마드리드 주 전역의 극장 및 각종 문화센터, 박물관, 광장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연극 뿐 아니라 무용, 음악, 어린이극,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워크샵, 컨퍼런스, 전시도 함께 개최되며 마드리드 시민들을 예술의 세계로 이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공연이나 행사는 무료 관람 혹은 할인을 제공하며, 마스터 클래스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007년 45개 극장, 103명의 작가와 110명의 연출가, 148개 극단과 485명의 배우가 참가하며 시작한 이 행사는 올해 역시 90여개의 공간에서 150개의 공연이 펼쳐졌다.

마드리드 연극의 밤 행사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Círculo de Bellas Artes(CBA)가 진행하는 NOCHE DE MAX ESTRELLA(막스 에스트레야의 밤)로, Valle Inclán의 대표 희곡인 보헤미안의 빛(Luces de Bohemian)의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 관객들이 마드리드의 거리들을 이

동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오후 6시에 마요르 거리에서 시작한 행사는 술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배우와 주요 문화인사들이 등장하여 편지 낭송, 낭독공연을 펼치거나 음악 공연 등이 이루어지다가 CBA 공연장에서 마무리 되었다.



연극의 밤 행사의 주요 공간인 왕립우체국 외벽의 현수막



테아트로 에스파냐 앞에서 펼쳐진 NOCHE DE MAX ESTRELLA의 한 장면

축제/행사명	La Mostra d'Igualada / 어린이 청소년 공연축제		
유형	공연, 축제	장르	어린이청소년극
운영주체	Vol-Ras		
개최시기	부활절 전후	시작년도	1990년
개최도시	바르셀로나 (Anoia)		
참가규모	53개 단체		
홈페이지	http://lamostraigualada.cat		

La Mostra d'Igualada는 바르셀로나 아노이아(Anoia) 지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청소년 공연축제 겸 박람회로 카탈루냐 공연들을 스페인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고, 현재는 매해 700여명의 전문가와 36,000여명의 관객이 찾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축제
및
행사



2018 La Mostra d'Igualada 축제 포스터

매해 부활절을 전후로 하여 4일동안 카탈루냐 지역의 어린이 극단들이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장으로 20여년 간 2,000편 이상의 공연의 초연이 이루어졌다.

29회를 맞은 올해 축제에는 600여 팀이 지원하여 이 중 작품의 질과 동시대성, 독창적이고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 자유로운 공간에서 상연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50여팀을 선정하였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카탈루냐 뿐 아니라 스페인의 다른 지역 및 해외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공연 장르 역시 연극, 마술, 서커스, 마임, 인형극, 무용, 음악, 복합장르,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을 위한 교류 공간과 컨퍼런스, 스피드 미팅, 프로젝트 마켓과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었다.

올해 <Mostra d'Igualada>는 공연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관객들의 경험의 공유와 확장을 모토로 53개 공연팀의 54개 공연을 104회 상연하였다. 공연팀 중에는 카탈루냐 출신

의 비중이 높고(40개), 8팀은 스페인 다른 지역, 4개팀은 벨기에, 프랑스 등 해외 공연팀이었다. 공연은 관객층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소개되고 있는데, 3살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6살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12살 이상의 소년 소녀를 위한 공연,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으로 크게 나뉜다.

개막공연은 이탈리아 극단 Factory Compagnia Transadriatica의 'Diario di un brutto anatroccolo'로 안데르센의 미운오리 새끼에서 영감을 받아 출생과 가족에게 버려짐, 왕따와 노동, 사랑, 전쟁 등의 이야기를 대사 없이 몸짓과 무대언어로 보여주는 공연이다.

* TIP : 2019년 행사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예정이고, 참가신청은 7월 중순~9월 중순(2018년 축제 신청일 기준)까지이다. 동시대성, 혁신성, 장르 기여도 및 구성력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연을 선호하는 편이다.

카탈루냐 공연팀이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내고 식사와 공연 제반사항을 제공받지만 해외 공연팀의 경우 공연비와 숙박비를 별도 협의 한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Mérida / 메리다 국제고전연극제		
유형	축제	장르	연극(고전)
운영주체	Pentación Espectáculos		
개최시기	7-8월	시작년도	1934년
개최도시	메리다		
참가규모	43개 공연		
홈페이지	http://www.festivaldemerida.es/		

메리다 국제고전연극제는 매월 7~8월에 스페인 남부 메리다의 로마극장에서 열리는 스페인의 주요 연극 경연대회이다. 1933년 시작되었으나, 1934년 스페인 내전으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다시 재개되었다.

연극제 외에 2012년부터 엑스트레마두라 정부와 협력하여 세레즈연극상(Ceres Theater Awards)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 연극상은 축제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초연된 공연을 12개 부분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축제의 주 공연장인 메리다 로마극장은 로마 건축의 견고한 모드와 조화양식을 잘 대표하는 건물로 약 2,000여년 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10년부터 극장의 발굴이 시작되었고, 로마극장을 포함한 메리다의 역사 지구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행사는 6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43개 작품이 공연되며, 그 중 로마극장에서는 9개 공연(연극 8작품, 무용 1작품)이 공연될 예정이다. 스페인 국립발레단과 엑스트레마두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Electra>로 시작되어 <벤허>, <Nero>, <Quo Vadis>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퍼레이드와 전시회,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숍 등 메인 축제프로그램 뿐 아니라 Off-Roma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메리다국제고전연극제는 예술감독인 헤수스 시마로(Jesús Cimarro)가 이끄는 Pentación Espectáculos 기획사가 운영하고 있다.

64 INTERNATIONAL
FESTIVAL OF
CLASSIC THEATRE
OF MERIDA **2018**
DIRECTOR: JESÚS CIMARRO

2018 축제 영문 로고



2017 축제 참가작 <트로이의 여인들> 공연장면